



내가 그대들의 방과라네!

한양대학교 노동조합

노동자의 행복과 보람
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

제19-008호

2019. 12. 2.

Tel. 02-2220-1600~1

Fax. 02-2220-1602

URL. <http://labor.hanyang.ac.kr>

Email. nojo@hanyang.ac.kr

작지만 큰 투자, 승진

승진은 내가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확인서인 동시에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격려다. 한편으로 가족들에게 자랑거리이며 자부심이다. ‘여보, 승진했어’ 라는 한 마디를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행복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조차 없다. 승진한 직원은 행복해하는 가족을 보며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진다.

반대로 이런 승진의 기쁨에서 누락되면 수년간 쌓아 온 애사심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악의만 남게 된다. ‘이번 승진에 누락되었으니 앞으로 더 잘해야겠어’ 라고 마음을 다잡을 사람은 없다. ‘날 이렇게 대우했으니 나도 그 정도만 일하겠어’ 라는 억하심정과 자포자기를 불러온다.

무조건적인 승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.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승진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. 승진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통해 직원이 대학 발전에 주축이 되어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며 나의 노력만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.

한정된 T/O로 인하여 수년간 승진대상자가 적체되었다. 대학당국은 승진후보자 명단을 잘 살펴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오랫동안 승진하지 못한 직원이 대학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. 또한 연차를 떠나 탁월한 성취를 이뤄낸 직원에게도 승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. 이 모두를 위해서는 승진 T/O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.

보직이 한정되어 있기에 직위별 승진 T/O 확대가 어렵다고 한다. 직위 승진과 보직 임명은 별건으로 봐야 한다. 무리한 겸직을 해제하고 공식인 자리에 보직자를 임명함으로써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. 자기모순적인 인사를 지양하고 승진적체를 해결하는 해안이 필요하다. 그 중 하나가 승진 T/O 확대다. 승진이야말로 그 어떤 교육이나 인센티브보다 더 효과적인 투자다.